**수학일보**

누구보다 빠른 어그로로 세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2XXX년 X월 X일 X요일

지구멸망 머지않았다?!

**지구, 2030년 이내 반드시 멸망……. 원인은‘금성 외계인’?**

최근 지구촌은 초비상이다. 전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지구 멸망설”때문이다. 원본 지구 멸망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2038년에서 온 지구인이며 지구는 2030년 이내에 반드시 멸망한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지구가열화도 한몫하지만, 금성에 거주하는 외계인이 다가올 2027년 10월 1일 지구를 습격할 것이다. 지구는 금성 외계인이 몰고 온 거대한 황산 구름 속에 갇히게 되며, 전 인류의 80%가 이때 죽음을 맞이한다. 살아남은 20%의 인류는 외계인 침략으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2029년 7월에 화성으로 이주를 시도하나, 한차례 실패하고 또다시 남은 인류의 절반을 잃는다. 최종적으로 10%의 인류는 2030년 화성 이주에 성공하고 8년이 지난 2038년, 필자가 이것을 작성할 때 지구인들의 화성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과거에 사는 지구인들은 행운을 빈다.’

처음에는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종의 인터넷 괴담 ‘지구 멸망설’은 근 1달간 놀라운 속도로 전세계 시민들에게 퍼져나갔다. 이미 청년층은 2027년 10월 1일을 D-DAY로 설정해 놓는 등 ‘지구 멸망설’의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관해 학자들은 “금성에 외계 생명체가 거주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그로 인해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만장일치로 ‘지구 멸망설’을 부정했다.

**고서안 기자**

**라이징 스타 신은수, 동료 女배우와 열애 발표…… 누리꾼 ‘경악’**

지난해 최고 시청률 32.2%를 기록한 한국 드라마‘XXX’속 \*\*\* 배역을 맡아 화제가 되었던 라이징 스타 신은수가 지난 X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커플링 사진과 함께 갑작스러운 열애 사실을 발표했다. 누리꾼들은 혼란에 휩싸였으며 대부분‘인정할 수 있다’, ‘잘 어울린다’등의 긍정적인 의견이지만‘이제 막 성장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아쉽다’, ‘여배우가 아깝다’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신은수의 SNS에는 현재 소위 ‘럽스타그램’(사랑을 뜻하는 러브(Love)와 SNS ‘인스타그램’을 합친 말. 연인들이 사랑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활동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다. 신은수는 세계적인 패션 잡지 XX의 X월 호 인터뷰에서 “아직 연애할 생각은 없다. 좀 더 연차를 쌓은 뒤 하고 싶다. (웃음)”며 신인의 연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더욱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데, 신은수의 팬 클럽을 운영하던 A 씨는 “믿을 수 없다. 배신감이 들어 못 참겠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실제로 신은수의 열애 발표 이후 소속 엔터테이먼트의 주가는 약 3.2% 하락했으며 소속사 대표인 이호윤 대표조차 몰랐던 사실이었다며 “오늘이 4월 1일인 줄 알았다.”라고 당혹스러움을 표출했다.

**고서안 기자**

**과학적 근거 존재? 이름 궁합 테스트….**

일부 과학계에서는 이름 궁합 테스트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의 광기는 측정할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아이작 지성 역시 생전 이름 궁합 테스트를 해본 결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궁합이 93% 맞아떨어져 크게 기뻐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름 궁합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이름의 획수를 계산**해 퍼센티지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 테스트는 통상적으로 장난스럽게 사용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있으나,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과 확실히 궁합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아이작 지성이 이름 궁합 테스트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한 일기장이 지난 7일 발견되어 세간에 큰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아이작 지성의 필기체를 해독하는 것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해독된 내용에 따르면 이름의 획수와 별자리, 혈액형 등이 과학적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허나 아이작 지성의 획기적인 발상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그저 아이작 지성이 좋아하던 이와 한 번 엮여보겠다고 망상 회로 돌리는 것 아니냐’등의 의견이 압도적이다.

**고서안 기자**

**XX교도소 또다시 수용자 잇따라 실종 사건, 경찰 조사 중…….**

최근 또다시 발생한 의문의 교도소 실종 사건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종된 수용자는 20대 남성 A 씨로, 28일 저녁 점호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청소부 B 씨는 29일 오전 A 씨의 실종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교도소 내외부를 수색하고 A 씨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다. XX교도소는 평소 수용자들의 사라짐으로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모습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도소의 관리자들은 사건과 관련하여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학일보의 고서안 기자가 직접 인근 주민에게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XX교도소 정문 옆 주택에 거주하는 C 씨는 수용자들의 실종은 예부터 잦았던 일이었다, 마치 사이비 집단에게 잡혀 가기라도 한 것 같다며 익숙하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전문가들은 XX교도소에서 연달아 발생한 실종 사건이 교도소의 관리 소홀과 안전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XX교도소로부터의 추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조속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고서안 기자**